

#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1월 19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기고] 새해 모두 안전한 농업 하세요 -14면(한영규)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미선팜, 감귤·양말 기부-12면	동부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밭농업 경쟁력 위해 특화작물 확대-3면	-	한라일보
○ 당근 수확 한창-3면	-	뉴제주일보
○ 브로콜리 수확에 분주한 농촌-2면	-	한라일보

(제주매일: 2024년 1월 19일)

○ [기고] 새해 모두 안전한 농업 하세요-14면

## 기고 새해 모두 안전한 농업 하세요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한 영규

겨울철 제주 곳곳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던 감귤. 노지감귤 수확이 마무리되고 농한기가 지나면 올해 감귤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감귤 나무 정지·전정 작업이 진행된다.

정지·전정은 병해충 발생을 줄이고 과실 품질을 높이며 해거리 폭을 줄이는 등 감귤 재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농작업 중 하나다.

하지만 매년 정지·전정 작업 시기인 3~4월이면 어김없이 농작업 사고 소식이 들려온다. 정지·전정 작업은 가위나 톱처럼 날카로운 농기구를 사용하고 작업이 끝나면 목재 파쇄기를 이용한다.

최근엔 전동가위, 기계톱의 사용이 늘어나며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간 정지·전정기간 중 46건의 목재 파쇄기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2건은 사망에 이르렀다.

농작업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예방'이다. 누구나 아는 해답이지만 "이 정도는 귀찮을 거야"라는 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야기할 수 있

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을 인식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이 정지·전정 작업 시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싶다.

첫째, 전동가위를 사용할 때 가위를 잡은 반대손은 절단 위치에서 최대한 멀리 두거나 톱 등의 기구를 사용한다.

둘째, 기계톱 사용 전 시운전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2명 이상의 작업자가 동시에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이동 시에는 엔진을 정지하고 한 손으로만 작업하지 않는다.

셋째, 목재 파쇄기 작업 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에서의 상·하차 시 주의를 기울이며 목재 길이가 짧으면 보조막대를 사용해 투입구로 밀어 넣는다.

특히, 파쇄기 회전부에 장갑이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손에 맞는 장갑과 작업용 토시를 착용해야 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한다.

농업은 업무상 사망·사고율 기준 세계 3대 위험 산업 중 하나로 근로자의 재해 발생 비율이 매우 높다. 하지만 농작업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농업인이 자신의 안전보다 농산물 재배·생산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안전수칙을 꼭 실천하며 사람이 먼저라 생각으로 모두가 안전한 농작업을 했제주매일 14

(제주매일: 2024년 1월 19일)

○ 미선팜, 감귤·양말 기부-12면



## 미선팜, 감귤·양말 기부

미선팜(대표 김상일)은 지난 17일 제주 감귤 5kg  
들이 100상자와 직접 제작한 양말 100개를 월드  
비전 제주나눔센터(센터장 강동균)에 기부했다.

1.19.

제주매일 12

(한라일보: 2024년 1월 19일)

○ 밭농업 경쟁력 위해 특화작물 확대-3면

밭농업 경쟁력 위해 특화작물 확대

서귀포시 올해 녹두 등 작물 330ha 규모 재배

서귀포시 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특화 작물에 녹두가 새롭게 추가된다.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이 되풀이되는 월동채소 대체 작목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특화 작물 1.19. 면적도 300ha 규모

1.19. 한라일보 3

1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24년

지역별 특화 작물 육성 정책으로 서부지역에는 호라산 밀(200ha), 성산지역에는 유채 유옹 유채(100ha)·녹두(20ha)·가을비트(10ha)를 재배한다. 신규 작물인 녹두 등 이들 특화 작물 재배 면적은 전년 250ha에서 올해 330ha로 확대된다. 서귀포시는 “다품종 적

정 생산 기반 구축으로 서귀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를 포함 올 한 해 농·수·축, 경제 일자리 분야 417개 사업을 펼친다. 농업 분야 104개 사업 1050억원, 해양수산 97개 사업 582억원, 청청 축산 143개 사업 189억원, 경제 일자리 73개 사업 198억원 등 총 201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농업 분야 주요 사업을 보면 토양 피복 등 감귤 당도 올리기 3대

사업 중점, 온라인 쇼룸몰(서귀포 in정) 매출액 100억원 달성 추진,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농업 2개소 확대 등에 나선다. 해양 수산 분야에서는 어선 선진화(48억), 친환경 양식 등 안전한 수산물 공급(99억), 어촌 뉴딜(86억), 가파·마라도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13억) 등을 벌인다. 경제 일자리 분야에서는 모슬포중앙시장 주차 빌딩(36억)이 연내 준공되고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30억원이 배정됐다. 진선희기자

(뉴제주일보: 2024년 1월 19일)

○ 당근 수확 한창-3면



1.19. 뉴제주일보 3

당근 수확 한창 18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한 밭에서 당근 수확이 한창이다.

임창덕 기자 kko@jejuilbo.net

(한라일보: 2024년 1월 19일)

○ 브로콜리 수확에 분주한 농촌-2면



브로콜리 수확에 분주한 농촌 6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브로콜리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